

17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내 고향 속담(1)

요즘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속담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 삶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나 어떠한 가치에 대한 견해를, 간결하고도 형상적인 언어 형식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상황에 맞는 속담을 인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 전달이 분명해집니다.

선생님의 어머니는 대화 중에 수시로 속담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이웃 사람들과도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방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에는 속담의 뜻을 대충 미루어 대강의 뜻을 알긴 했으나 본질적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을 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속담의 본질적인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가 즐겨 쓰셨던 방언 속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하는 방언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속담집에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실려 있지 않은 것도 있음을 밝힙니다.

♠ 석새비 씨도 안 드는 소리한다.

선생님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속담입니다. 지금도 이 속담을 떠올리면 어머니 생각이 절로 납니다.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장에 가시면 옷 하나 사오시라고 어머니를 조른 적이 있습니다.

“옴마 이번 고성 자아 가면 내 옷 하나 사온나”

“참 석새비 씨도 안 드는 소리 하고 있네. 니 입고 있는 옷이 말짱한데 무신 옷을 새로 사오란 말고?”

“빨리 니 바아(방에) 가서 책이나 디다보고(들여다보고) 공부나 해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내방으로 쫓으셨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실없는 소리와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셨던 모양입니다. 위 속담에 석새비가 나오는데 표준어로는 ‘석새베’이며 통영과 거제에서는 ‘석새미’ 라고 합니다. 베를 짤 때 날실 80올이 한 새가 되므로(지역에 따라 40올이 한 새로 치기도 함.) 석새베는 날실 240올로 짠 베를 말합니다. 그보다 더 품질이 좋은 베는 날실의 올수가 많이 들어간 닥새베(날실 320올로 짠 베), 닳새베(날실 400올로 짠 베), 옛새베, 열새베 등이 있는데 석새베보다는 닥새베가 더 곱고 닥새베보다는 닳새베가 더 곱고 품질이 좋습니다. 열새베도 있는데 베 중에서는 가장 곱고 값이 비쌉니다. 베 중에서 가장 영성하고 성기게 짠 베가 석새베이므로 ‘석새비’ 는 ‘가치 없는 말’ 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씨도 안 드는’ 이란 의미는 베를 짜게 되면 씨실을 넣어야만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베를 짤 수가 없습니다. 석새베는 영성하게 짜기 때문에 씨가 잘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씨가 안 든다고 했으니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 하지 마라는 의미, 즉 쓸데없는 소리한다란 의미를 가진 속담이 바로 ‘석새비 씨도 안 드는 소리한다.’ 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이와 아주 유사하게 ‘석새베에 씨도 안 든다’ 라는 속담이 실려 있고 ‘일숨씨가 매우 거칠고 영성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속담이나 고성의 속담이나 본질적으로 똑 같은 속담인데 국어사전은 전혀 엉뚱하게 잘못 풀이해 놓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 하겠습니다.





1 '엄마가 들려주시던 내 고향 속담 1' 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석새비' 는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속담을 조사해 봅시다.



2 부모님께 '석새비 씨도 안 드는 소리' 를 한 경험을 적어 봅시다.



3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을 통해 우리 지역의 방언을 조사해 봅시다.